

영화, 인문학을 만나다

동구 인문학당, '영화인문학극장' 진행... 10회 무료 참여 '동주' 등 감상 후 문학 평론가·철학자 등과 대화의 시간

지난 1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서석교회 주차장 바로 옆에 문을 연 광주 동구 인문학당(동계전로 168-5)은 70년 된 오래된 가옥과 신축 건물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동구청은 한옥과 양옥집이 어우러진 본체를 리모델링하고, 정원을 사이에 두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 인문관을 꾸렸다.

광주시민의 인문 문화 활동의 거점을 지향하는 동구 인문학당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4월 8일 개막하는 '어린왕자 특별전'은 전 세계에서 발간된 '어린왕자' 책과 함께 전시, 강연, 퀴즈, 릴레이 읽기가 이어지는 기획이다.

철학자,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영화 인문학극장'은 현재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주최측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카프카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를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는 기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문학 극장은 오는 4월14일부터 8월18일까지 모두 10차례 격주 목요일(오후7시-밤10시) 열린다. 25명 선착순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로 시작한다. 길라잡이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그래, 다시 한번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를 외치자'를 주제로 강연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다이라 아즈코의 동명 단편이 원작으로 전도연과 하정우가 주연을 맡은 '멋진 하루'는 푸디토리움의 음악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철학자 이항준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5월26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타란티노가 당신에게 묻는다:셰익스피어를 문 줄리엣의 개는 누구에게 총을 맞았나?'가 주제다. 시인의 감성을 만날 수 있는 영화도 있다.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일 포스티노' (6월23일)는 송승환 시인과 함께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오손 웰츠의 영화는 두 편을 만난다. '심판' (4월28일) 감상 후에는 박해용 철학박사의 '오직 '나'만을 위한 출구는 있는가?'가, '악의 손길' (6월9일) 감상 후에는 유운성 영화평론가의 '여러 예술들 속에서 영화의 위치에 대하여' 강의가 이어진다.

또 이준의 감독의 영화 '동주' (5월12일) 감상 후에는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대표의 강의가 펼쳐지며 장 필 고다르의 '아워 뮤직' (7월7일) 상영 후에는 '우리의 밤과 우리의 음악을 빛으로 밝히는 영화의 원리'를 주제로 영화평론가 신은실과 이야기를 나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과는 '드라이빙 마이 카'로 아카데미 후보작에 오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아사코' (7월21일)를 감상하고 '재난의 시간, 시간의 재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밖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데어 윌 비 블러



신형철 교수



영화 '일 포스티노'

드' (8월4일)는 '금옥이 낳은 탐욕' (최송아시민주사대 학 사무국장), 페르난도 메이렐레스의 '눈먼 자들의 도시' (8월18일)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방식' (김형중 문학평론가) 강의와 함께 만난다.

한편 동구인문학당에서는 동구 지역 5개 서점이 추천한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결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관 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 062-229-170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인문학극장'이 열리는 동구 인문학당.

'아시아의 별' 보아 데뷔 20주년



매주 한 곡씩 리메이크 '셀프 커버 프로젝트' 진행

'아시아의 별' 가수 보아가 올해 일본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10주 연속으로 매주 자신의 곡을 재편곡해 공개하는 '셀프 커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보아는 2001년 5월 싱글 '아이디 피스비' (ID: PEACE B)로 일본에 데뷔해 이듬해 정규 1집 '리슨 투 마이 하트' (LISTEN TO MY HEART)가 100만장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한국 가수 최초로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찍었다.

보아는 이 음반을 포함해 2장의 앨범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7장 연속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 내

K팝 한류를 이끌었다. 한국인 최초 NHK '홍백가합전' 6년 연속 출전과 일본 음반 판매량 1000만장 돌파라는 기록도 썼다.

보아는 21일 일본 6집 '더 페이스' (THE FACE) 수록곡 '어그레시브' (AGGRESSIVE)를 시작으로 매주 한 곡씩 10주 연속으로 음반을 공개한다.

오는 5월 29일에는 일본 도쿄 국립 요요기경기장에서 20주년을 기념하는 '보아 20th 에니버서리 스페셜 라이브 - 더 그레이티스트-' (BoA 20th Anniversary Special Live -The Greatest)도 연다. 다음날

에는 20주년 기념 앨범 '더 그레이티스트' (The Greatest)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내가 나를 설득하며 조심하던 말들..."

장흥 출신 위선환 시인, 시 에세이 '비늘들' 출간

"언어를 전진한 자유와 그렇게 자유로운 능력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시다. 언어의 전진함을 말하면서는 아울러서 시이므로 자유로운 언어의 능력을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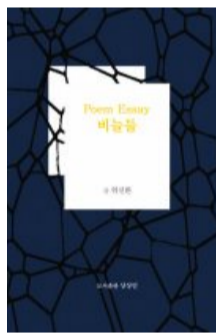
장흥 출신 위선환 시인은 1960년 서정주, 박두진이 선(選)한 용어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그러나 그의 표현대로 하면 "1970년대부터 이후 30년간 시를 끊었다"고 한다.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였다. 그때부터 창작집을 발간해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현대시작품상, 현대시학작품상, 이상화시인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시인은 그간의 시적 사유의 결과물인 시 에세이집 '비늘들' (상상인)을 펴냈다.

책은 그동안 시인의 문학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시론 이면서, 시의 궤적이기도 하다. "기실 내가 나에게 주 의하거나 내가 나를 설득하며 조심하던 말"들을 모은 셈이다.

시인이 정의한 시의 실체는 "시는 시'일 뿐이다." 언어와 사물은 하나"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 물과 하나인 언어는 '온갖'이며 '모든'을 드러낸다. 그의 견해는 '사물인즉슨 언어는 모든 날이자 온갖 날들의 원형과 실체를 드러내면서 '모든'이자 '온갖'인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수렴된다.

시인은 자신이 1960년대 시도한 전위시 현상이 오늘날의 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한 번 더 전위적 시도를 견지한다. 이는 '서정적 전위



성을 확보한 사유가 담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시작과 끝, 사람의 지금과 여기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시집 '시작하는 빛' 이후에 쓰는 시로써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고 황현산 평론가는 '위선환의 고전주의'에서 '위선환은 그 시적 발상법에서도 그 필법에서도 고전적이다. 생각은 그 표현 형식을 다듬는 가운데 깊어지고, 열개를 짓는 말들은 그 말과 함께 발견되었거나 발전하는 생각으로 그 세부가 충전된다'고 평한 바 있다.

한편 위 시인은 지금까지 작품집 '나무들이 강을 건너갔다', '눈 덮인 하늘에서 넘어지다', '새떼를 베끼다', '두근거리다', '탐진강', '수평을 가리키다'와 합본 시집 '나무 뒤에 기대면 어두워진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요톱텐' 25년만에 부활
첫 골든컵 주인공은 누구
 25일 '버추얼 가요톱텐' 유튜브 첫 방송

KBS 대표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가요톱텐'이 25년 만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활한다.

KBS는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 KBS 월드 유튜브 채널에서 '버추얼 가요톱텐' 라이브 스트리밍 첫 방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송은 이를 뒤인 27일 KBS월드 TV 채널을 통해 114개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버추얼 가요톱텐'은 1998년 2월 종영된 '가요톱텐' 포맷을 살려 K팝 아티스트와 가상세계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가상 공간인 '퀵트 오아시스'에서는 아

티스트와 팬들의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이뤄진다.

'버추얼 가요톱텐'은 '가요톱텐'이 5주 연속 1위를 한 아티스트에게 골든컵을 주는 방식을 이어 그 주의 1위 아티스트에게 골든컵을 수여한다. 첫 방송의 골든컵 유력 후보로는 스트레이 키즈, 마마무 솔라, 브레이브 걸스, 크래비티, 빌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아티스트 육성을 위해 커버 댄스 배틀을 통해 실버컵을 수여한다. 첫 방송에서는 미래소년과 블리처스가 각각 핑클의 '나우', H.O.T의 '전사의 후예' 춤으로 맞붙는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마당 |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